



복 지 이 야 기

봉사



영적으로 강화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봉사일 것입니다. 자기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가진 것을 나눠 주거나 그들을 위해 뭔가를 행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옥스 장로님은 2009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비이기적인 봉사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마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풀기 위해서 행동하고 봉사할 때 더 행복해지고 더 큰 보람을 얻는다는 영원한 원리를 대변해 줍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에게 비이기적인 봉사를 베푸는 희생으로 그분을 따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것’ (교리와 성약 14:7)인 영생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살 수 있는 영광과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음 내용은 실생활에서 그 원리를 실천한 사례입니다.

작고 단순한 방법으로(Ensign, 2009년 6월호)

몇 년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한 저는 오랫동안 척추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코티손 치료약에 이상 반응을 보이는 저는 통증을 줄여 주는 전기 장치를 연결하지 않고선 45분 이상 앉아있거나 두 시간 이상 누워 있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잠깐 통증이 없는 시간, 이 짧지만 소중한 시간을 활용하여 주님께 봉사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야 하지만 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부름. 방문 교사로서 저는 전화나 편지만 해달라고 하는 자매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또한 방문 교육 책임자로 봉사하며 상호부조회에서 만든 생일카드를 보내는 일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가족 역사. PAF에 정보를 입력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을 매일 1분씩 늘려가는 것이 제 일일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이 일을 하곤 했습니다. 마침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석 달 동안 입력한 파일에는 700개가 넘는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1년쯤 지나 무려 4만개나 되는 이름을 제출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색인화 하는 일은 가정에서 자원 봉사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FamilySearchIndexing.org에 로그인만 하면 됩니다.

친구. 저처럼 집에만 있어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친구들한테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합니다.

평소에 소홀히 여겨지는 일들, 우리 와드에서 사용하는 침례복은 종류별로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침례복을 집으로 가져와 달라고 부탁해서 옷 크기와 모양 별로 정리해 상자에 넣고 라벨을 붙여 놓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주변 사람들에게 작고 단순한 방법으로 봉사하면서 무한한 기쁨과 평화를 느낍니다. ■

제시카 에드워즈-잉글레스테드, 버지니아 주



1. 씨앗이 뿌려지다

리아호나 지역 소식에서는 한국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신앙의 발자취를 찾아서’라는 기획 기사를 연재합니다. 기사에는 초기 한국 교회의 발전에서부터 교회가 성장해 가는 과정이 각 지역의 스테이크와 지방부가 조직된 순서대로 담길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로 김호직 박사의 개종과 한국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전쟁의 포화가 한국 땅을 휩쓸었던 1950년, 동족상잔의 비극 앞에 모두가 신음하던 그때 저 멀리 미국 동부에서는 희망의 불씨가 싹트고 있었다. 김호직, 중년의 나이에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길에 오른 그가 바로 희망의 주인공이었다. 코넬 대학교에 입학한 그는 영양학 분야에서 지식을 쌓아 굶주린 동포를 돕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고 있었다. 김호직은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한편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1905년 4월 16일 평안북도에서 태어나 서울 농대의 전신인 수원 고등농림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동북대학 생물학과를 졸업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종교에 관심을 가졌다. 참된 진리, 참된 교회를 찾고 싶다는 김호직의 개인적인 바람은 코넬 대학교에서 사귄 친구, 올리버 웨이먼에 의해서 해결되었다. 김호직이 보기에 올리버 웨이먼은 특이한 사람이었다. 다른 친구들과 달리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지도 않았고, 욕설은



물론이고 불평하는 말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다. 게다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도 일요일만 되면 어디론가 사라졌다. 어느 날 김호직은 올리버 웨이먼에게 직접 물었다. “당신이 그렇게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리버 웨이먼은 말없이 한 권의 책을 내밀었다. ‘신앙개조’라는 이름의 책이었다. 그것이

김호직과 후기 성도 복음과의 첫 만남이었다.

그 짧고도 강렬했던 만남 이후 김호직은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올리버 웨이먼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라는 사실과 몰몬이라 불리는 그 교회가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 참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김호직은 ‘신앙개조’를 읽었고, 곧 몰몬경도 읽었다. 간증은 빠르고 강렬하게 찾아왔다. 메말라 있던 초목이 여름 소나기에 해갈을 하듯 복음 메시지를 받아들인 김호직의 신앙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다. 곧 선교사들과 복음 토론을 시작했고, 망설임 없이 침례를 결정했다.

1951년 7월 29일, 일찍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침례를 받은 사스캐하나 강에서 김호직은 침례를 받았다. 그의 나이 46세 때였다.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나올 때 김호직은 꺾가를 울리는 뚜렷한 음성을 들었다.

“내 양을 먹이라.”

훗날 그 음성이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불씨가 될 것임을 당시의 김호직은 알지 못했다.

한국으로

김호직 박사는 1951년 9월에 귀국했다. 전쟁이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접어든 시점이었다. 한국 땅을 밟은 김호직 박사의 마음속에는 회복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강한 소망이 들어있었다. 김 박사는 부산에 있는 수산대학 학장으로 재직하게 되었다. 당시 부산은 피난민들과 미군들이 몰려있는 곳이었다.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언제나 활기에 넘쳤고, 변화의 기운이 꿈틀대는 곳이기도 했다. 김호직 박사는 후기 성도 미군들의 예배에 참석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음성이 떠나지 않았다.

부산에 주둔했던 후기 성도 미군들은 매주 화요일 저녁에 영어 회화와 구도자 반을 운영했다. 성찬식 모임도 진행되었다. 성찬식 모임에는 30명이 참석하고 있었는데 그 중 15명의 한국인 방문자가 있었다.¹ 김호직 박사는 수산대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후기 성도 예배 모임에 참석했다. 김호직 박사는 한국인들을 위해서 복음 교리를 설명하고 간증을 나누었다. 지식인으로서 나라를 재건하고 국민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에도 열심이었지만 김호직 박사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회’로 채워졌다. 어느새 울창한

숲을 이룬 그의 간증과 신앙은 곧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교회 모임에 젊은이들이 모여 들었다. 복음 이야기를 통해 영어를 가르치는 후기 성도 미군들의 방법은 효과적이었고, 친절한 설명과 통역을 해 주는 김호직 박사의 모범 또한 빛나기는 마찬가지였다. 광포한 전쟁의 상처에 아파하던 한국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은 단비와 같았다.

1952년 8월 3일, 김호직 박사의 헌신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한국 땅에서 처음으로 침례가 있었던 것이다. 모두 네 명의 회원이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네 명 중 두 사람은 김호직 박사의 차남 김태환 형제와 차녀 김영숙 자매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한영희 자매와 그녀의 딸 이성자 자매였다. 그 후 여러 사람이 개종의 길로 들어섰다. 후기 성도 부산 그룹은 1953년 8월 15일에 정부의 서울 환도 발표가 있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했다.

선교 사업의 시작

김호직 박사가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도 한국은 정식 선교 지역이 아니었다. 그런 중에도 회원 수는 꾸준히 늘어났다. 김호직 박사는 대부분이 대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이었던 한국 회원 중 유일한 어른이었고, 회원들을 이끄는 지도자이기도 했다. 한편, 김호직 박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돌아오느라 숫자가 줄어든 부산에서도 복음의 물결은 끊임없이 넘실거렸다. 당시 군목이었던 팔도 형제의 인도 아래 부산의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뭉쳤고, 조직적이고 규격에 잡힌 집회를 하게 되었다. 대청동 남쪽 산허리에 한국인들만의 집회소도 갖게 되었다. 집회소는 최재신 형제의 집이었는데, 집을 짓기 위해 당시의 회원들이 손수 힘을 모았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복음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 성장은 교회 본부의 지도자들이 보기에도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급기야 1954년 9월, 십이사도 정원회의 해롤드 비 리 장로가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에서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해롤드 비 리 장로는 열정적이고 겸손한 한국 성도들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다. 미국으로 돌아간 해롤드 비 리 장로는 김호직 박사를 비롯해 한인 성도들의 신앙과 열정을 설명하며 한국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1955년 4월 7일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일본 선교부를 북극동 선교부와 남극동 선교부로 나누기로 결정했다. 한국은 북극동 선교부에 속하게 되었다. 그렇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 ■

〈다음에 계속됩니다.〉

주

1. ‘내 양을 먹이라’, 23쪽.



왼쪽부터: 사스케하나 강에서 침례 받는 김호직 박사; 초기 부산에서의 집회 모습, 해롤드 비 리 장로(제일 뒷줄 오른쪽)와 한국 성도들. 김호직 박사는 둘째줄 왼쪽에서 두 번째.

“청소년 대회에 참석합시다”



백덕수 장로, 지역 칠십인 청소년 대회위원장

지난 연차 대회에서 홀랜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은 종종 지진이나 기근 또는 홍수와 같은 재난이 대규모로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나 후기에 있을 파멸 중 한 가지는 대중적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이고, 집단적이라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일어납니다. 아마도 교회 밖보다는 안에서 더 필요한 경고일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후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약의 백성조차도 진리의 적에게 미혹당할 수 있다고 경고 하셨습니다.”

홀랜드 장로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마지막 경륜의 시기에 “……이같이

악마가 그들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그들을 인도하여 지옥으로 내려가는”(니후 28:21) 사탄의 강한 영향력을 생활 곳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 청소년 대회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미혹당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려는’ 소망을 키울 수 있도록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EFY(Especially for Youth)라는 명칭으로 지난 33년 동안 BYU는 물론이고 미국 내 여러 대학에서 방학 동안 매주 마다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자비를 부담하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함에도 매년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참가의 기회를 갖지 못할 정도로 열광적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교회 본부에서는 이 EFY 프로그램을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적용시키고자 하였고, 그것이 바로 한국에서 열리게 될 ‘복합 스테이크 특별 청소년 대회’(SMYC: Special Multi Stakes Youth Conference)입니다. 이 대회는 2010년 7월 26일부터 7월 31일 까지 5박

6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 대회에 봉사하는 모든 분들은 합당하게 부름을 받으며 성별을 받습니다. 부름 받은 임원들은 프로그램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4~18세의 청소년들이 공과와 활동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복음의 회복, 몰몬경과 살아계신 선지자에 대한 간증을 얻고 키우도록 돕습니다. 개인 기도, 경전 연구, 일지 기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봉사의 기회를 찾을 수 있게 합니다. 가정의 밤을 하며 가족 속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배웁니다. 정결, 친구, 순결, 회개 등의 주제를 배우면서 청소년의 자긍심을 갖게 합니다.

또 청남들이 아론 신권의 목적과 책임을 배우며 멜기세덱 신권을 받고 전임 선교사로서의 준비를 하게 되며 성전 성약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청년들에게는 그들의 삶에서 신권의 중요성을 배우고, 성전 추천서를 받는 것과 여성과 어머니로서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상호부조회로 발전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지속되는 우정을 쌓고, 형제자매들에게 봉사하며 그들의 개인적인 가치를 더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목적은 청년 독신 성인들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년 독신 성인들이 봉사, 가르침, 간증으로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께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지금은 여러분이 젊은이었던 그 시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게 많은 위험과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배운 가치관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체를 잃게 한다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세상에서 이룬 성취와 업적과는 상관없이 자녀의 문제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 할 수 없다’는 말씀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 모든 가족의 큰 불행이며 참을 수 없는 영혼의 고통일 것입니다. 이 대회는 부모님들이 미처 알지 못하여서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청소년 대회 포스터. 추후 새로운 포스터가 공개될 계획이다.

못했거나, 알면서도 실천 할 수 없었던 주님의 방편들을 배우도록 준비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변화되기를 바라십니까?

자녀가 행복해 하며 신앙과 사랑을 지니고 화합하는 정신을 갖게 되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를 바라십니까?

대회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회가 나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청남-

“내가 큰 간증을 키울 수 있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시작 했습니다.”-청녀-

“우리 아이들이 특별한 영을 집에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변화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행복해 합니다. 아이들은 마음에 사랑과

신앙과 단합의 영을 지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부모-

이 대회는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살 수 있게 되길 바라며 또 강해지도록 눈물로서 간구하는 많은 부모님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될 대회 이후를 기대하면서 학업이 바쁘고 시간을 낼 수 없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지 기도해보시고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테이크와 지방부 회장님, 그리고 감독과 지부 회장님께

2009년 연차 대회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대회를 여러 스테이크가 함께 모여서 갖도록 권유를 하셨습니다. 지역 회장단은 이 프로그램을 채택 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사탄의 영향력이 큰 이 시대에 ‘지상의 천국’과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게 될 우리 청소년들이 복음 안에서 그 어느 세대 보다 더 강하게 준비되길 바랍니다.

청소년과 부모님들이 이 대회를 잘 준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진행된 EFY(Especially for Youth) 모습들.

“사랑을 나르며”

지금은 구경하기가 힘들어졌지만 20년 전만 해도 서민들의 겨울철 난방의 주역은 연탄이었다. 지금도 연탄에 대한 추억들이 생생하다. 신혼 초에 연탄 몇 백 장을 들여 놓고 월동 준비를 끝냈다는 안도감을 품기도 했고, 시골에서 올라온 조카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된 적도 있었다. 좀처럼 깨어나지 않던 조카가 병자축복을 받은 후 의식을 회복했던 일은 지금 생각해도 주님께 감사드릴 추억이다.

작년 11월 첫째 주, 와드 대제사 그룹 위원회 활동을 하던 중에 복지위원회의 이희승 형제가 연탄을 나르자는 의외의 제안을 했다.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연탄이 난방비를 걱정해야 하는 어려운 이웃들의 방을 아직까지도 따뜻하게 데우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이 형제의 설명을 통해 알게 되었다. 결국 연탄 나르기 활동을하기로 결정했다. 봉사를하기로 한 날짜가 다가올수록 나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봉사에 필요한 인원이 과연 모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다. 나는 주님께 열심히 기도를 드렸다.

대망의 12월 12일, 교회에 모인 회원들은 모두 26명이었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엔 나는 주님께 감사드렸다. 우리는 홀로 사는 두 노인분의 집에 연탄을 날랐다. 길게 줄을 서서 연탄을 옮기는 우리의 손놀림은 서툴렀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은 진지하고 순수했다. 나는 앞으로 더 많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봉사야 말로, 제 몸을 불살라 온기를 전하는 연탄처럼 우리 후기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이라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

김영근 형제, 서울 북 스테이크, 일산 와드



연탄 나르기에 동참한 김영근 형제와 일산 와드 회원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저는 익산 와드 초등학교에 다니는 박현진입니다. 저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 형, 그리고 저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몸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몇 달 전에 중풍으로 입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병문안을 갔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께서 집으로 돌아오셨지만 걸음도 잘 못 걸으시고, 일어나시지도 못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잘 움직이지 못하시는 할머니를 온 힘을 다해 일으켜드렸습니다. 약도 챙겨드리고 물도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머니의 손톱과 발톱도 깎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예전처럼 건강해지도록 마음속으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기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에도 더 많이 응답해 주셔서 할머니가 완전히 낫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가족은 물론이고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공부방이 있는 다른 교회가 아닌, 저희 교회만 다니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감독님과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고 난 뒤 공부방을 안 가고 교회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중에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가 좋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중에도 꾸준히 교회에 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부모님들께서 사랑을 많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

박현진 형제, 전주 스테이크, 익산 와드 초등학교



어머니의 침례식에 참석한 현진이와 가족들.

내 이름은 조셉



내 영어 이름은 조셉이다. 조셉 스미스를 알기 1년 전 쯤 영어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지은 이름이다. 선교사와 ‘30:30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해 들었을 때, 묘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일까 조셉 스미스

의 첫 번째 시현에 대해 들었을 때 전혀 낯설지가 않았다. 오히려, 어느 교회가 옳을까 하고 고민했던 내게 정답을 알려주는 것 같았다. 선교사와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복음에 대해 하나씩 배우기 시작하자, 2달 정도 지난 주일날, 산에서 조난을 당할 뻔한 상황이 발생했고, 조셉 스미스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써 길을 찾아 무사히 하산한 경험이 있다. 그때의 가슴 벅찼던 느낌은 아직도 생생하다. 진리를 찾는 데 목말랐던 나에게 하나님은 선교사를 보내주셨고, 참된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셨다. 원주 지부에서 내가 침례 받은 지 한 달 후쯤 아내도 침례를 받아 우리는 가족 회원이 되었다. 회원이 된 이후 훌륭한 회원들과 매주 성찬식을 통해 만나면서, 또 기도와 경전 읽기, 선지자 말씀 등을 통해 이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간증이 점점 커져갔다. 간증이 커지면서 우리 가족에게 몇 가지 변화가 생겨났다. 비가 오지 않는 날엔 거의 매일 테니스를 치고, 늦게 귀가하곤 했었는데, 점점 테니스를 줄이게 되었다. 하루 석잔 이상 커피를 마셨던 아내는 이제 커피를 안 마신 지 1년이 넘었다. 그뿐 아니라 최근 성전에서 가족 인봉을 받는 큰 기쁨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애 쓰셨고 지금도 애쓰고 계시는 것일까?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는 형제자매님들께 감사드리고 싶다. 또한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한국에서 봉사하시는 선교사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

신헌태 형제,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교리와 성약 98편 1절

“진실로 내가 너희 나의 친구들에게 이르노니, 두려워 말라. 너희 마음에 위로를 얻으라. 참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참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나는 교리와 성약 98편 1절을 읽으면서 감사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후기 성도로서 감사해야 할 일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감사드리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 나는 감사드릴 만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했을 때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리와 성약 78편 16절을 통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

내가 후기 성도로서 감사해야 할 일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다는 점이다. 가족은 가장 훌륭한 안식처다. 하루를 끝내고 다 같이 모여 앉아 저녁 식사를 할 때면, 나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를 느끼게 된다.

두 번째는, 참된 복음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에 대해 조셉 스미스와 초기의 성도들, 그리고 어머니께 감사드린다. 조셉 스미스가 숲 속에서 드린 은밀한 기도 덕분에 참된 복음이 회복될 수 있었고, 초기의 성도들이 많은 역경을 겪으면서도 이 복음을 소중히 가꿔왔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복음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나는 어머니께 감사드린다. 그 분 덕에 나는 이 훌륭한 복음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세 번째는, 경전과 말씀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물몬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취할 수 있다. 또한 매일 발행되는 리아호나를 통해 전 세계 성도들의 간증과 현대의 계시를 얻을 수도 있다. 끊임없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정말 감사드릴 일이다. 작은 일이나 큰 일 모두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장소영 자매, 서울 동 스테이크, 중랑 와드

취업 선교사 권찬태 장로 부부



권찬태 장로와 김정애
자매는 2009년 12월 15일부터
서울 취업자원센터에서 취업
선교사로 봉사 중이다. 벌써 두
번째 봉사이다. 두 사람은 이미
2007년 9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캐나다 밴쿠버 선교부와 한국

서울 서 선교부에서 부부 선교사로 봉사했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한인 회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다. 김정애 자매는 음악을
통해 교회를 자주 알리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권찬태 장로
부부는 은퇴하자마자 곧바로 부부 선교사로 출발했다. 부부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영적으로 많이 배우고
기쁨 때도 많았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서는 큰 보람과 축복의
기회였다. 그래서 귀환 후에도 건강이 허락할 때 주님이 원하는
곳 어딘가에 나가 두 번째 봉사를 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서울 취업자원센터 부부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서울 취업자원센터는 교회 복지 시설 중의 하나로 취업이
필요한 서울 지역의 회원들을 돕는 일을 한다. 권찬태 장로
부부는 봉사하는 동안 영적인 자립의 기초가 되는 세상적인 자립,
즉 일의 중요성과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도록
회원들을 돕는 일에 치중할 생각이다. 또한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취업자원센터의 도움을 구하고,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 권찬태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복지 사업은 주님께서 회복하신 참된 교회임을 증명해 줍니다.
이렇게 성스러운 일에 미력이나마 동참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주님과 신권 지도자들과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성스러운 복지사업에 동참할 자원 봉사 부부 선교사나 회원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

공보 선교사 닐슨 장로 부부



2009년 12월 19일부터
새로운 공보 선교사로 닐슨
장로 부부가 봉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9월에 부부
선교사로 한국에 왔다.
처음에는 서울 선교부 소속
선교사로 장위 와드와

종교교육원 등에서 봉사했다. 그러던 중에 전임 공보 선교사였던
리 장로 내외가 귀국하면서 부름이 변경되었다.

닐슨 장로 부부는 유독 한국과 인연이 많다. 닐슨 장로는
1962년부터 전임 선교사로 3년 동안 한국에서 봉사했고, 그 후
1992년에는 아내와 함께 서울 서 선교부 회장으로 또 한국을
찾았다. 인연은 그뿐만이 아니다. 두 사람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 서울 성전에서 성전 회장으로 봉사했다. 그리고
6년 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한국 땅에서의 네 번째 봉사를
시작한 것이다. 두 사람이 생각하는 한국 사람의 장점은 겸손하고
성실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의가 바르고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닐슨 장로는 한국의 가족적인 분위기가 말로
교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봉사를 시작한 지 한 달, 닐슨 장로 부부가 생각하는 공보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원이 아닌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특히 신권 지도자와 지역
사회의 지도층 인사가 친교를 쌓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닐슨 장로
부부의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 모두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며 닐슨 장로는 이렇게
강조한다. “언제, 어느 자리에서건 후기 성도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종교를 존중하고
겸손한 태도로 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보 사업은 회원
여러분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해외 1명



정의용 장로
청주 스테이크
홍덕 와드
캐나다 토론토 동
선교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마산 스테이크
창원 와드 감독: 이호중(전임: 이용재)